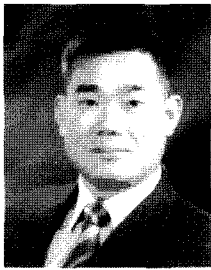


출하시 중량체크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



유 재 석 협력소장
(주)TS해마로식품 충청지역

- 1월 동절기의 이상적인 육추실 꾸미기
- 2월 병아리 무게와 사육성적과의 관계
- 3월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관리요소(1)
- 4월 사육성적 15% 높이는 쉬운 방법(1)
- 5월 초산 및 노계병아리 입추시 사양관리 방법
- 6월 출하시 중량체크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
- 7월 열사 및 무더위에 대한 대책
- 8월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관리요소(2)
- 9월 사육성적 15% 높이는 쉬운 방법(2)
- 10월 질병발생을 사양관리로 극복하는 방법
- 11월 깔짚 종류에 따른 사양관리 방법(톱밥, 왕겨, 벚짖)
- 12월 육계사육 시 안전사고 유형과 대책

머리말

요즘 출하되는 농장을 보면 다른 때에 비교해서 층어리가 심한 관계로 이른바 쪼리(약추)가 농장에 많이 남는 경우가 많다. 약추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병아리의 품질문제라고 판단된다.

병아리 품질문제는 사육을 하고 있는 육계농장 관리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사양관리로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종계나 부화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병아리 가격과 무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담당하는 업무를 충실히 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계군에 층어리가 발생하게 되면 관리자는 중량체크의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고 정확한 중량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장에서는 출하되는 닭의 중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회사나 구매업자에게 되도록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고 육계가격이 좋지 않을 수록 정확한 중량체크가 더욱 요구된다. 중량체크가 잘못되어 출하가 예정된 날에 닭 차가 농장에 들어왔다가 그냥 되돌아가서 출하하지 못했던 경험은 한두번씩 있을 것이다.

닭의 출하중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계열회사들이 계약서상에 중량허용오차를 두고 오차에서 벗어나면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옵션을 두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간 관리자인 협력업체에도 중량허용오차 범위에서 벗어나면 협력수수료를 차감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로 그 허용범위는 통보체중의 50g 정도이다.

따라서 이번호에는 출하 직전 정확한 닭의 중량체크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중량체크를 정확히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중량체크가 왜 중요한가?

1) 필요한 구매(영업)물량 확보

출하시점에서 중량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계 후 닭을 팔기 위해 필요한 영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보자.

도계된 닭을 영업거래처에서 주문하게 되는데 9호짜리(도계해서 900g전후-생계로 치면 1,350g-수율 68% 정도) 10,000수의 주문이 들어왔고 12호짜리(도계해서 1,200g-생계로 치면 1,800g 내외) 10,000수를 주문 받았다고 가정하면 구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문된 거래처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부터 생닭을 사게 되는데 1,350g(1.35kg)짜리 20,000수와 1,800g(1.8kg)짜리 20,000수를 구매할 것이다.

이때 농장에 닭 차가 1.35kg으로 알고 왔는데 1.25kg 이하거나 1.45kg 이상 된다면 닭을 산 회사는 밤에 다른 농장에서 중량에 맞는 닭을 사야 하는데 시간상 닭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 1.8kg짜리로 알고 농장에 들어 왔는데 1.6kg 밖에 안된다든지 2kg이 넘을 경우 결국 회사는 닭의 중량이 맞지 않은 관계로 회차를 하거나 닭을 가져온다고 해도 거래처에서 주문한 영업물량을 공급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회사는 주문하는 대리점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고 불신이 쌓일 것이다.

중량이 틀리면 여기에 머물지 않고 팔리지 않는 닭들은 도계 후 냉동 처리되어 냉동실에 보관해야 되니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고 생산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닭을 사육하는 목적은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팔 수 없는 제품은 사육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극한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현장에서는 부지기수로 흔히 발생하는 일들이다. 특히 필드에 닭이 많아 생계가격이 떨어질 때는 중량이 맞지 않으면 닭 차가 회차하는 경우가 많으며 닭이 부족해서 생계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밤에 다른 농장에서 닭을 구매할 방법이 없어 결국 회사는 구매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회사가 영업을 못하면 사육비도 역시 결재가 늦어져 생산자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다.

2) 차량배차

출하일자가 정해지고 출하중량이 통보되면 회사는 생계수송차량을 배차하게 되는데 차를 몇 대를 배차할지 결정하는 요인들은 닭의 중량, 출하수수, 계절, 기온, 차량크기, 출하시간, 수송거리, 어리장, 기타 등과 같다. 이때 차를 몇 대 배차할지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출하수수와 평균중량이다. 중량체크가 잘못되어 중량이 작으면 불필요한 차가 배차될 것이고 중량이 크면 닭을 다 신지 못하고 남을 것이다. 어리장 한 칸에 닭의 중량에 따라 상차할 수 있는 수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실을 경우 사계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B급이 발생된다.

3) 사료조치

중량체크가 잘못되어 출하를 못했을 경우에 농장에서 경험하는 일이지만 사료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육계 특성상 대체로 출하작업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료조달이 쉽지 않다. 대부분 농장이 재고사료를 없애기 위해 출하시점에 맞게 사료를 맞추기 때문에 만약 출하가 예정된 시간에 출하가 안될 때 밤새 사료를 굶기는 경우가 많다.

4) 출하인원

출하날짜와 시간이 결정되면 출하인원을 확보하게 되는데 중량이 맞지 않아 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면 출하인원의 식사 및 비용지불이 두 배로 들게 되고 상차인원 확보도 쉽지 않다. 농장의 회차 횟수가 늘어나면 농

장과의 민음이 떨어지게 된다. 이밖에도 회차에 따른 운반비가 증가하게 되고 회사와 농장, 구매거래처와의 불신이 쌓이는 것도 문제점이다.

2. 중량체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량을 체크하는 시기는 병아리 입추당일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정도는 해야 하는데 이때는 계군의 이상 유무를 알고 질병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출하 3~4일 전부터는 매일 체크해야 한다. 이때는 가급적 같은 시간에 체크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여기서는 중량체크시 참조할 사항들과 중량체크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1) 중량체크시 참조할 사항들

입추일자	입추수수	최근 2회 예시 중량 적중률	계절별 성적
1주령 초생 추 폐사	병아리 계중	체크시점 총 사료 섭취량	1일 섭취량
급여 사료 품 목	전·후기 교체일령	시장내 최근 평균 사료 요구율	1,000수당 사료포대 수
질병 감염 여부	곡 시 둌 감염 여부	호흡기 감염 여부	총어리 정도 (균일도)
초 생 추 중량	평당 사육 수수	생균제, 유산균제 첨가여부	깔짚의 종류와 두께
암모니아 발생정도	수당 1일 증 체 량	시 장 내 최근기온	관리자의 예시중량 (목적)
중량체크 수수	몇 동을 체크했나	주 령 별 중량	백신허수 ND, IBD, IB 등

2) 중량체크 방법

시설의 현대화와 사육규모가 증가하면서 자동 체중측정 전자저울의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충분한 설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방법은 다음에 논



▲ 1일령 전자저울을 이용한 병아리 중량 체크 모습(1회 10수)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직접 관리자가 중량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시간과 노동력이 요구돼서 문제지만 관리자가 직접 중량을 체크하는 것이 예상중량의 정확도에 근접할 것이다.

국내 유수의 육계계열업체인 H사의 경우 중량을 체크할 수 있는 큰 플라스틱 바구니를 일괄 구매해서 공급하는 것을 봤는데 그 노력이 높이 평가된다. 사실 정확도도 많이 향상됐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통 1회에 15수 정도 넣을 수 있다고 한다.

중량체크는 동별로 모두 체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하 전날은 중량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출하 전날 마지막으로 중량 체크를 한다. 일일이 모든 닭을 체크할 수는 없고 샘플을 체크해야 한다.

표본 숫자는 많이 잦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현실적으로 50수당 1마리 정도를 권장한다. 즉 10,000수 계사의 경우 200여수를 체크하는

데 계사의 앞과 중간 뒤의 세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케이지 철망 같은 것을 이용하여 측정지점에 있는 닭들을 가둬놓고 전부 재야 한다.

1마리씩 째 경우에는 큰 닭들만 잡히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서 50수 정도를 가둔 후

1마리도 빠지 말고 전부 측정해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3) 예상중량 결정 및 통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중량을 측정된 마리수로 나눠서 평균 중량이 나오면 중량체크시 참고할 사항들을 감안해서 예상중량을 결정한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중량체크를 해도 예상중량의 허용오차인 50g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충분한 근거자료에 의해 제시된 중량이라면 틀렸을 지라도 횡수를 거듭하면서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다.

예상중량은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기록과 측정된 자료에 근거해서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자는 사양관리의 마지막이 정확한 중량체크임을 명심하고 여러 가지 번거롭고 힘들지만 반드시 정확한 중량을 관련회사에 통보하여 회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농장의 건승을 빈다. C